

그·날·의·도·로

1969년 12월 26일

그날, 제3한강교가 개통되었다 (現 한남대교)

1969년 12월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 진입로 역할을 하는 제3한강교가 개통되었다. 이후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전 지역이 일일생활권이 된 계기를 만들어 준 한강의 교량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교량 중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교량 중의 하나이다.

제3한강교는 강남 개발의 초석이었다. 당시 강남은 개발이 되지 않은 논과 밭으로만 이뤄진 시골이었는데, 1966년 1월 서울시와 정부에서 강남개발계획 발표와 제3한강교 착공식이 연이어 이뤄져 강남 천지개벽의 신호탄이 되었다.



1969년 12월 준공 시 제1한강교(한강대교), 제2한강교(양화대교)와 광진교 이후 네 번째로 지어진 한강 교량이었지만, 인도교 중에서 세 번째로 지어졌기 때문에 제3한강교라고 정했다. 현재의 한남대교는 1985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제3한강교에서 교량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뒤 한남대교도 교량 정밀안전 점검을 했으며, 붕괴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1996년 12월 기존 교량 왼쪽에 차선을 신규 증축하는 교량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3월 개통하였고, 기존 교량은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2004년 8월 9일 재개통하여 현재의 12차로 교량이 완성되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